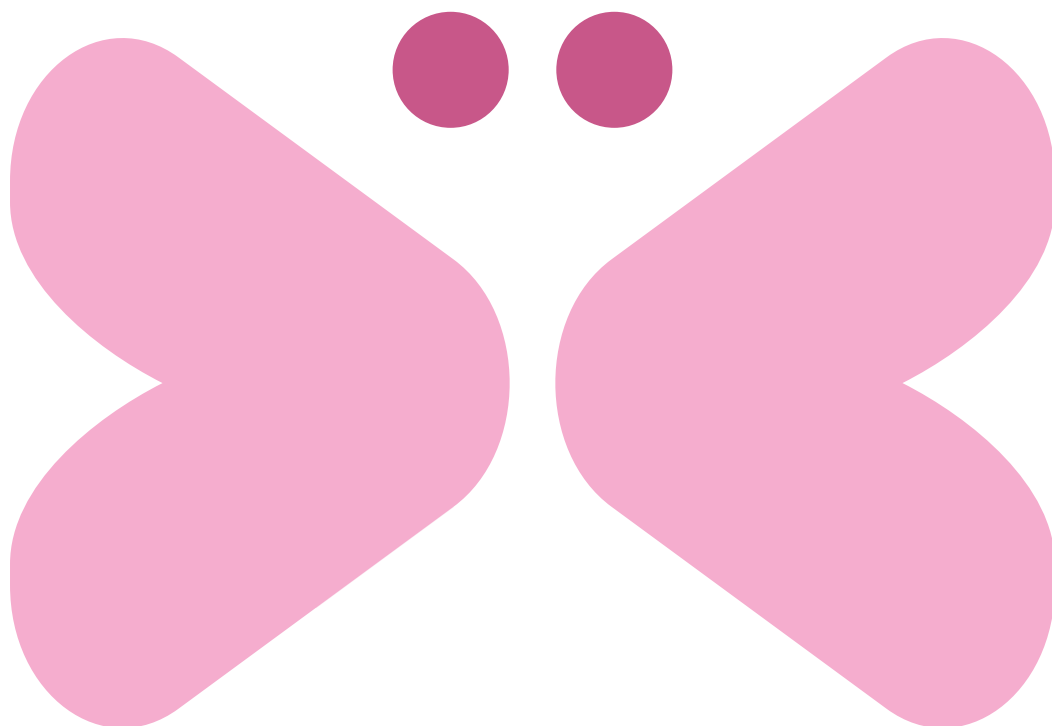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33



전라남도
신안 하의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CONTENTS

PHOTOSTORY :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4 호남약도, 천일염, 섬 풍경

LIFESTYLE :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06 역사 속에서 만나는 하의도 : 하의3도 농민 토지탈환운동

07 하의도 민속신앙 대리 당제
다도해 바닷길로 섬과 섬을 잇는 슬로시티 3호

RESOURCES :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08 1월부터 12월까지, 하의도 바다와 밭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09 책으로 만나는 어촌 속담『漁村俗談集』(1980년)
바다생물 인문학 : 천일염(天日鹽)

PEOPLE :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0 하의도 대리마을 주민 제갈향덕 님

12 섬사랑15호 김현일 선생님

TRAVEL :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4 신안 하의도 투어 가이드
하의도에서 먹고 잘 곳

16 하의도 여행 명소

18 <특집 코너> 바닷길을 통해 만나는 하의도 작은섬

NEWS&ISSUE :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20 이달의 주요 섬 뉴스

참고문헌

김정호, 『河衣島』, 1998.

전라남도,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 1980.

전라남도, 『호남약도(湖南略圖)』, 1965.

정약전, 『자산어보(玆山魚譜)』, 181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생업기술사전 - 어업1』, 2014.

도움주신 분

신안군 하의면사무소

하의면 대리마을 주민 제갈향덕 님

하의면 섬사랑15호 김현일 선생님

하의면 슬로시티3호 이성훈 선생님



섬 단어사전

여객선공영제



021.

교통기본권은 국민들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다.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간접적으로 근거할 수 있다.

섬에 가기 위해서는 여객선이나 유·도선을 이용해야 한다. 연안여객선은 해수부에서, 유·도선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객선 공영제는 기존 보조항로를 공영 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조기 실현해야 할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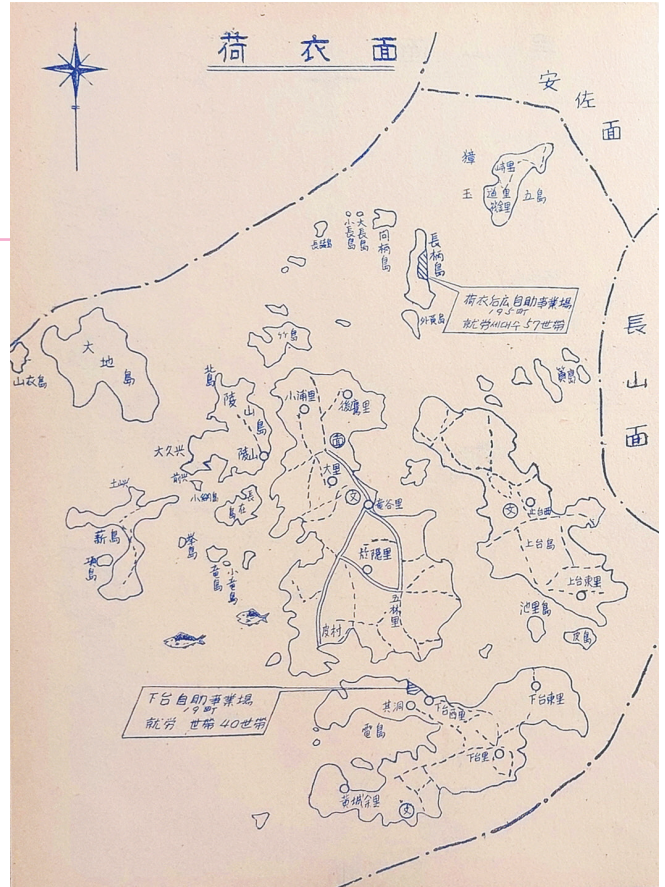


PHOTO STORY

호남약도, 천일염, 섬 풍경

무안군 하의면 하의 3도

오늘날 하의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곳으로, 2023년 인구는 총 1,632명(996세대)이며, 개도, 옥도, 신도 등 8개의 작은섬이 분포한다. 조선시대에 나주목(羅州牧)에 속했다가 1896년 대한제국 시기 지도군(智島郡)에 편입, 돌산군(突山郡), 완도군(莞島郡)과 함께 섬 지역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도서군(島嶼郡)으로 자리 잡았다. 해방 이후인 1969년 무안군에서 분리되어 창군(創郡)한 신안군에 이속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65년 전남도청에서 제작한 『호남약도(湖南略圖)』에서 하의면은 신안 지역으로 편입되기 전 무안군에 속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83년 상·하태도가 신의면으로 승격되기 전 하의도에 속하여 온전한 ‘하의 3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점이다. 이처럼 해당자료는 시대 흐름 속에서 바뀐 행정·지리적 변화와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발견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호남약도(湖南略圖)』무안군 하의면 하의 3도(1965년)

이 자료는 도로나 철도, 행정구역 등 일반적인 교통 정보를 표기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60여 년 전 전남 도민들의 시선과 사고를 반영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점에서 특별함이 있다. 지도를 보면 하의도와 대야도, 능산도 신도 등 주요한 섬 외에 죽도, 거도, 용도, 장화도(현 간암도) 등 작은섬이 소개되어 있다. 한자어로 표기된 섬 지명이 오늘날 지도보다 많이 발견되는 점도 흥미롭다.

또한 바다로 나한 상·하태도 사이에 피도(皮島)와 타리도(池里島) 등 육지화되지 않고 온전한 섬으로 그려진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하의면 장병도에는 ‘下衣 后広 自助事業場 195町 就勞 세대수 57世帶’, 하태도 하태서리에는 ‘下台 自助事業場 19町 就勞 세대수 40世帶’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자조 사업을 위한 개인 또는 공동체별 사업장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오늘날 마을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과 같은 선진적인 지역 모범 사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늘 아래 보석을 빛기 위해 소금밭을 짓다

사각형 염판 위에 바다를 가두고 별을 모아 반짝이는 보석을 빛어내는 소금밭. 5, 6년마다 짼물에 잘 견디는 미송으로 제염 결정지 가림막을 교체하는데, 하의도 피촌마을을 지나다 운 좋게 발견했다. 아시아 각국 청년들과 염부 어른이 하나로 땀땀 땀땀 구슬땀 흘리는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신안군

#하의면

#하의도

#특산물

#천일염전

#소금밭



섬마을에 피어난 봄꽃



하의도 어은리에서 만난 섬마을 봄(春) 풍경



오전 물때에 맞추어 부산히 움직이는 전복 관리선



신안군 하의도와 신의도를 잇는 삼도대교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역사 속에서 만나는 하의도

: 하의3도 농민 토지탈환운동

예로부터 농업과 염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하의도 주민에게 토지는 삶의 원천이고 자부심이었는데, 이들은 이 땅에 관해 3백 년에 걸친 통한의 역사를 안고 있다.

조선시대 선조(宣祖)는 만딸이었던 정명공주의 불치병을 치료한 홍계원을 부마(駙馬)로 삼아 하의 3도(하의도, 상태도, 하태도)를 그에게 *무토사패(無土賜牌)로 주었다.

하지만 정명공주의 증손자인 홍석보가 죽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명공주에게 준 면세전 20결이 후손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이들은 하의 3도에 있는 토지에 대한 절수권(국가 대신 세금을 받을 권리)을 받았다고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받아 갔다. 세월이 흘러 홍씨들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1870년 이완용의 아버지 이호준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하의 사람들의 진정이 재차 시작된다. 이 감사는 모든 토지에 대해 1부에 백미 2되씩만 홍씨들에게 주라고 판결해 주었으며, 이에 대해 하의도 사람들은 송덕비를 세웠다.

하의도 주민들은 토지 반환을 통해 소유권을 얻기 위해 저항을 이어왔다. 1946년 7월 17일 소작료 징수를 위해 상륙하려는 직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상태도 주민들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후 목포경찰서 및 하의도분서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소작료 합동 징수를 시작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하의지서와 신한공사 하의지부를 불태웠는데, 이 날을 기리어 '하의도 7·7 농민항쟁'이라고 불렀다. 결국 1956년에 이르러 1,500정보의 농경지가 평당 200원의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환원되었다.

신안군에서는 하의 3도 농민항일운동과 더불어 암태도와 지도 등지에서 일어난 소작쟁의 정신을 받들어 2019년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사)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켰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총 37명의 농민운동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고, 서훈되었다.

* 무토사패(無土賜牌) : 나라에서 받을 토지세를 대신 받음



하의3도 농민운동 기념관

하의도 민속신앙 대리 당제

하의도(河衣島) 대리마을은 민속신앙인 당제로 유명한 곳이다. 대리당은 유풍(儒風)이 결합된 독특한 당제 문화로,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썼던 초암 김연 선생이 당제를 직접 주관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마을주민의 결속을 다진 이야기가 구전(口傳)을 통해 전해 내려온다. 대리 당제는 예로부터 하의도에서 영하기로 소문이 자자는데, 마을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지 못했고, 덕봉산을 마주 보며 담배를 물고 걸어 다니던 주민이 화를 입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대리 당제는 매년 정월 무렵 제주를 선정하여 당제를 거행했는데,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을 기준으로 5일 후 각각 춘제와 추제를 지냈다. 당신(堂神)은 7신(神)으로, 하의덕봉산후토신(荷衣德鳳山后土神), 후직신(后稷神), 풍백신(風伯神), 우신(雨神), 운신(雲神) 등이다. 시간이 흘렀지만, 주민들은 전통적인 풍습으로 인식

하여 오랫동안 제사를 거행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전후하여 주민 간 세대교체, 천주교, 기독교 등 외래 종교 신자 수 증가 등으로 결국 중단되었다.

당제가 중단된 후 당제와 관련된 제의 공간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당숲이었다. 섬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마을주민을 위한 쉼터이자 섬 여행 명소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7월 무렵 산림청은 대리 당숲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 숲을 가꾸어 잡목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제초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숲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아울러 당제가 중단되면서 노후화된 당집도 신안군에서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새롭게 단장했다.



하의도 대리 당숲

다도해 바닷길로 섬과 섬을 잇는 슬로시티 3호



신안군은 그간 섬 지역을 가기 위해 목포항을 경유해서 왕래해야 했던 해상 교통 여객 시스템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지속 해왔다. 2019년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완공된 후 관내 읍·면 소재지가 있는 큰 섬에 분포하는 항·포구를 기점으로 신규 항로를 개설, 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한 것이다.

신안군은 2019년 슬로시티 1호 여객선(자운도 교량항↔증도 왕바위항) 취항을 시작으로, 슬로시티 2호(지도읍 송도항 ↔ 증도면 병풍도),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경 슬로시티 3호를 공식 운항하고 있다. 슬로시티 3호는 하의도 당두항에서 능산도와 대야도를 경유, 도초도 시목항까지 하루 4번씩 오간다. 특히 승선 요금이 천 원(성인 1명 기준)이라서 ‘천원 여객선’으로도 불린다. 당초 목포항을 거쳐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소요시간이 줄어들었다. 섬 주민들이 해상 교통 이동권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여객·물류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신안군이 시행한 여객선 공영제는 차량 중심의 내륙 교통 문화가 주를 이루는 오늘날 상황에 반한 것이다. 나아가 바닷길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해상 교통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많은 섬 지역이 분포하는 전남 일선 시·군으로 제도 도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의도 밭과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밭작물



유채
4~6월



고추
4~6월



벼
4~10월



콩
6~7월



블루베리
6~8월



고구마
7~10월



보리
9~6월

해산물



톳
3~6월



칠게
3~7월



장어
3~10월



낙지
3~11월



전복
3~12월



천일염
4~9월



새우
5~10월

책으로 만나는 어촌 속담『漁村俗談集』(1980년)

고기를 잡으려면 의붓아비 모시듯 해야 한다

통용 지역 / 수집자(蒐集者) : 완도 / 전라남도청 장형태

과학적 타당성

넓은 바다에 서식하는 고기는 손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다. 어류의 서식 연구와 해황의 예제(豫祭)는 물론 어패, 어법의 꾸준한 개발 등 과학적, 경험적인 노력의 결실로 얻어지는 것이다.

현대적 풀이

아무렇게나 해도 고기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 어선이나 어패 등을 소중히 하고 정성 들여 노력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어촌속담집 표지

바다생물 인문학 천일염(天日鹽)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은 1907년 인천 주안 지역을 중심으로 축조되었다. 그 후 1950년대까지 서남해안 일대에 많은 염전 축조술이 보급되었다. 특히 6·25전쟁 피난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염전이 조성되었는데, 전남 신안군 증도 염전·영광염전, 경기도 화성 공생염전, 인천광역시 영종도 삼목염전 등이 그 예이다. 천일염전은 저수지와 증발지, 결정지 등으로 구성되고, 부대 시설로 해수와 소금 창고 등이 설치됐다. 염전 시설을 좀 더 살펴보면, 저수지의 경우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한 달에 두 번 만조시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저장한다. 증발지는 저수지에 저장된 바닷물을 끌어들이 수분을 증발시키고 염도를 높이는 곳이다. 제1증발지를 '난치', 제2증발지를 '누테(느테)'라고 한다. 끝으로 결정지는 증발지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소금을 결정하는 곳으로 소금 창고 앞에 조성한다.

보통 바닷물의 염도는 3도 정도로, 난치에서 증발하여 염도가 15도 정도 되면 느테로 이동하고, 22도 정도 되면 결정지로 함수를 옮긴다. 염도가 25도 정도 되면 소금꽃이 피고 28도에 소금 결정이 이뤄진다. 소금생산 시기는 3월부터 10월 까지이며, 5월에서 6월에 가장 많은 양의 소금이 생산된다. 염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 굳히기이다. 판 굳히기는 염전 바닥을 밟아서 굳도록 하는 작업이다. 그런 다음 물러를 굴리고 덜 마른 속은 누르면서 굳힌다. 3월 중순부터 바닷물을 앉히기 시작해서 2~3일이 지나 채염을 시작한다.



신안 천일염전

염전바닥은 토판, 옹판, 타일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바뀌었다. 초기의 염전바닥은 갯벌을 그대로 다진 토판이었다. 1955년 이전 염전 결정지의 소금판은 현재와 같은 타일이 깔려 있지 않아 소금에 갯벌이 섞여 검은색을 띠었다. 이곳에서 채취된 소금을 '토판염'이라고 하는데, 각종 미세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고가에 판매되었다. 1955년 이후에는 소금의 청결성과 채취 작업의 편리를 위하여 항아리 등 유기 파편을 결정지에 깔아 사용하였다. 2018년 5월 2일 문화재청은 갯벌에서 소금을 얻는 제염(製鹽)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신안 증도의 태평염전·소금창고, 비금도의 대동염전 등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였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의도 대리마을 주민
제갈향덕님

Q1 하의도에 섬 여행 명소 어디가 있는지?

A1 섬에 오는 여행객들을 보면 보통 1박 2일 일정으로 자고 가는 이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아침에 와서 오후에 나가는 여행객이 많다. 아직까지 섬 여행지가 많지 않은 듯하다. 그럼에도 몇 곳을 꼽으면, 먼저 '김대중 대통령 생가'이다. 군이 지역별로 살피면 광주 시민들이 많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사람들이라서 민주주의에 관한 애착이나 관심이 많은 덕분이지 않을까? 대통령이 난 고향이라서인지 그간 역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정치인까지, 손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다녀갔다.

두 번째, 하의도에 속한 작은섬 가운데 멋진 비경을 지닌 '신도(薪島)'이다. 이 섬을 하늘에서 내려 보면 꼭 여자가 춤추는 형상처럼 생겼다. 섬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드넓은 해변과 모래밭이 펼쳐진 모습이 장관이다. 예전에는 매년 한 번씩 집안 식구들과 다녀오곤 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웅곡항에서 신도를 오가는 섬사랑15호가 없어서 풍선배를 타고 다녔다. 이 배는 바람이 부는대로 가다 서기를 반복해서 섬에 닿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또 안전성도 낮아서 너울이라도 만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풍파 없는 행복이 있던가? 그 시절 겪은 경험이 큰 보탬이 됐다.

세 번째, 섬 서쪽으로 난 해안도로를 따르면 이르는 '모래구미 해수욕장'. 섬 주민들은 모래구미 해수욕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1980, 90년대부터 하의도 주민과 더불어 섬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피서지였다. 해수욕장으로 개장한 초창기만 하더라도 인파로 북적였다. 개장 초창기에는 비닐하우스를 지어 닭튀김이나 백숙 등 닭요리를 팔았다. 육지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메뉴가 많아 마을주민들과 삼삼오오 모여 찾곤 했다. 추억 가득한 해수욕장이 다시 개장하길 기대한다.

모래구미 해수욕장을 지나면 자연이 빚은 보물인 '큰바위얼굴'을 만날 수 있다. 하의도 해안선을 따라 도로를 내기 전까지 주민들은 이 바위가 있는 줄 몰랐다. 농사짓는 섬사람들은 앞쪽에만 눈을 대고 살기 마련이다. 누가 걸어서 산 너머 해안까지 갈까? 그렇게 길이 생기고 나서야 큰바위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측면에서 보면 꼭 사람 얼굴을 닮았다. 뒤에서 보면 마치 사자나 호랑이처럼 꼬리를 세우고 앞발 내민 형상이다.

Q2 하의도 섬 주민으로 어떻게 지내왔는지?

A2 적잖은 논밭과 소금밭까지 고루 갖춘 하의도. 특히 소금밭이 많았는데, 정작 주인은 몇 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리마을의 경우 큰 염전이 한 곳뿐이었는데, 주인 역시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죄다 염주 한 명 밑에서 일하면서 고단한 시간을 보냈다. 옛날만 하더라도 세상 어디나 쌀이 귀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콩보리밥에 풋김치를 올려놓고 밥상을 차리는 날이 많았다. 지금처럼 가스레인지나 압력밥솥이, 후라이팬과 같은 주방 도구가 없어서 한 솥에 밥을 짓고 나면 국이나 반찬을 요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밥 퍼 담고 나서 늘어붙은 솥단지에 물을 말아 솥을 해 먹었다. 이 와중에 칠게를 갈아 만든 젓국은 찬거리로 최고였는데, 지금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 칠게를 갈아 만든 젓국을 몇 숟가락 보리밥 위에 올려두면 군침이 돌곤 했다. 예전에는 칠게를 잡아 목포 상인들에게 낙지 미끼로 팔곤 했다. 바다 환경이 좋은 시절에는 물이 쓰는 찰나 갯벌 위에 앉아 있던 칠게로 온 바닥이 새카맣게 변하곤 했다. 걷기 좋게 단단한 갯벌을 오가며 녀석들을 주워 담는 재미가 쏠쏠했다.

하지만 지금은 갯벌이 물려서 들어가기 어렵다. 작년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혼이 났다. 사람들이 들고 나는 횡수가 줄어서 그런지 허벅지까지 차오른다. 사람들이 갯벌을 자주 밟고 다녀야 건강해지나 싶다. 하의도 옹곡리에서 후광리에 이르는 ‘큰빨’이 참 좋았다. 이 갯벌에서 손으로 낙지잡이를 하거나 그물을 쳐서 물고기도 많이 잡았다. 여기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큰빨을 통해서 장병도까지 걸어 다닌 것이다. 아무리 밟아도 발이 빠지지 않는 빨길 말이다. 두 섬 간 거리가 상당했다. 친정집을 장병도로 두고 하의도로 시집온 주민 한 사람은 친정집에서 얻은 쌀 한 말을 머리에 이고 다녔다. 나도 파래를 채취하려고 장병도까지 걸어간 기억이 있다. 또 지금은 철타이 세워진 노랑섬(내황도)으로 건너가 칠게를 잡았다.

Q3 예나 지금이나 섬에서 물이 귀한데 하의도에서 물 사정은 어땠는지?

A3 하의도에서 옹곡리는 물이 귀한 동네 중 한 곳이었다. 그래서 옹곡마을 사람들은 차라리 술을 한 잔 사고 말지 물은 절대로 안 준다는 소문이 돌았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옹곡리 주민들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으며 지낸 다른 마을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때 물을 먹지 못해 섭섭했다고 농을 치기도 한다.

이런 환경 탓에 옹곡리 주민, 특히 면소재지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모두 풍선배를 타고 상태도와 접한 큰 산 밑 샘에 가서 물을 길어 왔다. 그런데 대리마을은 마당마다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곤 했다. 특히 시원한 냉수가 잘 났는데, 아침저녁으로 물을 떠다 밥을 지었다. 하의도에서도 대리가 살기 좋은 동네인 건 틀림없다. 마을 뒤로 덕봉산이 자리한 덕분이라 생각한다.

Q4 예전부터 다양한 일을 해왔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A4 시집와서 농업과 염업 외에 잡화점을 운영했고, 지금은 옹곡리 여객선터미널 매표소에서 일을 한다. 또 대리에서 방앗간, 그러니까 정미소를 운영한다. 마을에 방앗간이 두 곳 있는데, 하나는 대성 방앗간. 또 다른 곳은 우리 승일 방앗간이다. 최근에는 과실수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

그렇게 다양한 직업을 갖고 열심히 지내왔던 건 그저 가족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요즘 사람들도 저마다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라면 소비하는 데에도 바쁘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예전보다 물품이 흔해졌으니까. 고된 지난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신기할 뿐이다. 매일 새벽 1시까지 상점 물건을 정리하다 잠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다. 그렇게 수면 시간이 짧았지만, 열심히 지냈다. 요즘 농·어촌과 함께 섬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열심히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디서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이 귀한 시절이니 신안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섬에 정착해서 재미난 일상 추억들을 쌓아갔으면 좋겠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섬사랑15호
김현일 선생님

마도로스

젊은 시절 오대양(五大洋) 육대주(六大洲)로 나아가 청춘을 던졌다.

굽어진 팔뚝을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이던 시절을 뒤로 하고 나이 먹어가니
시선을 바다에 두었으되 무거워진 육신이 육지로 향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말년에는 땅 위에 첫발 내딛어 앉아도 보고 눕고도 싶은 꿈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바다가 그리웠다. 이런 게 바로 마도로스의 숙명이 아닐는지.



“08시 00분 섬사랑15호 현재 승무원 00명, 승객 00명입니다~”

Q1 처음 배를 탄 게 언제쯤인지?

A1 청년 시절 배를 타려고 여수 수전(수산전문대학)을 나왔다. 지금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로 편입됐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여수 수전이 유명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배를 탄 건 20여 년 전으로 외항선을 15년 정도 탔다. 포항제철에서 철물 제품을 싣고 운반하는 배에 올랐다. 주로 중국 요동반도에 접한 발해만에서 상해, 홍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항구를 오갔다. 그 밖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도 다녔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에서도 일을 했다. 어찌 지내다 보니 쉴 덩이랑 인연이 깊었다.

선장으로 활동한 지 오래지만, 처음부터 조타기를 손에 쥔 건 아니었다. 1항해사를 하다가 선장이 됐다. 항해사 역할은 기본적으로 당직을 서고, 화물선에 화물을 선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선박에 컨테이너 박스나 상품들을 안전하게 실어야 손조롭게 항해할 수 있다. 이를 잘못 실으면 복원력을 상실해서 좌초되거나 침몰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무리 경험을 쌓아도 배의 균형, 즉 평행수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자빠지고 만다. 보통 화물을 선적하면 아래쪽보다 위쪽이 무거운 법이다. 대양을 누비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적을 둔 건 5년 정도이다. 주로 전남지역에 속한 목포시, 완도군, 고흥군 등지에서 제주도를 오가는 항로였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는 밀감을 선적한 화물선도 몰았다.

최근에 와서 섬사랑15호 탔는데, 꼬박 1년 6개월 정도 됐다.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섬사랑호를 몰다가 하의도로 옮겨왔다. 전남지역에는 섬사랑호 시리즈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위로는 영광군에서부터 목포시, 진도군. 그리고 남해안은 해남군, 완도군 등이다. 지역마다 배치된 배는 그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같은 섬사랑호다.

Q2 섬사랑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A2 주민들이 배를 놓치면 중요한 일을 못 보게 되니까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에도 많은 전화를 받는다. 운항 거리나 기항지가 워낙 많다 보니 설정된 항로를 따라 작은섬을 방문하지만,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니 주민들은 늘 전화를 해오곤 한다. 그래서 사전 예약제 시스템도 겸하면서 운항하는 셈인데, 섬사랑호는 어찌 보면 수상 택시이자 완행버스다. 평소에는 승객이 적게 타지만, 특정 기간에는 많이 배에 오른다.

예를 들면 선거하는 날이나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 그리고 여름 피서철이 그렇다. 목포항에서 하의도 옹곡항으로 들어오는 남신안농협 여객선에서 섬 주민들이 내리면 우리 섬사랑호가 작은섬 주민들을 모신다. 섬사랑호는 낙도 보조항로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라 영리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에서 섬 주민이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선사에 위탁하는 형태다. 섬사랑15호가 기항하는 섬에 사는 주민 가구 수를 보면 대부분 열 가구에서 스무 가구 정도다. 인원 규모만 놓고 보면 경제성을 논하기 어렵지만, 누구에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Q3 하의면에 속한 작은섬 중에 신도가 중인데,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지?

A3 그렇다. 신도는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해서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특히 해수욕장이 좋아서 여름철에 많이 찾는다. 앞서 언급했지만, 명절이나 연휴에도 신도를 고향으로 둔 섬 주민과 관계된 가족이나 친척들이 방문한다. 해마다 설날이나 추석 무렵이면 신의면 상·하해도 쪽에서 하의도로 많이 넘어온다. 행정구역상 두 섬 지역이 나누어 있지만, 예전에는 하의 3도로 통합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신의도는 하의도인 셈이다.

Q4 섬사랑호를 운항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A4 섬사랑호 운항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먼저 작은섬일수록 접안 시설이 작다. 하의도에서 서쪽으로 향하면 무수히 많은 섬들을 만나는데, 가히 군도(群島)라 할 만하다. 섬과 섬 사이에 형성된 수로는 조류가 강한 편인데 이들 섬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접안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금껏 문제 없이 원활히 운항해 왔지만, 배에 승객과 차를 태울 때면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또 기항지가 많은 점도 업무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섬사랑15호는 여덟 군데지만, 목포항에서 진도군 조도군도로 가는 섬사랑 10·13호는 작은섬을 중심으로 총 스물두 군데를 거친다. 금세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도해 지역의 경우 섬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린다.

배가 클수록 바람 영향을 적게 받는데, 섬사랑호는 작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바람결에 밀리는 경우가 꽤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큰 배를 운항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선박이 크면 그만큼 무게도 나가는 법인데 연안 지역에 자리한 작은섬은 수심이 낮아 암초에 걸릴 수 있어서다. 운항 항로 가운데 접안하기 까다로운 곳은 '개도'라는 섬이다. 유난히 다른 섬보다 접안지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곳에 지주식 김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협곡으로 난 강(江)처럼 생겼다. 하지만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장이 지닌 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Q5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사랑호를 운항하는지?

A5 먼저 적잖은 나이에도 봉급을 받고 지낼 수 있어 감사하다. 나이가 섬 주민들을 생각하면 바다 교통이 불편한 상황에서 하의도까지 안전하게 모실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 부여가 된다. 그래서 조타기를 잡는 날마다 사명감이 절로 생긴다. 섬사랑호에 오르는 나와 선원 모두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이지만, 모두 섬을 통해 먹고 살아가니 어찌 보면 주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연유로 가끔이지만 섬 주민들과 음식을 주고 받으며 나눠 먹기도 한다. 정(情)을 베푸는 문화가 사라진 요즘이라서 뜻깊게 생각한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신안 하의도 투어 가이드

신안 하의도 식당

연번	상호명	유형	주소	연락처
1	제일정육식당	한식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11-17	061-275-7298
2	하의전복	한식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11-20	061-275-3050
3	잔등식당	한식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24	061-275-4037
4	황소식당	한식	전남 신안군 하의면 전광길 3	061-275-4280
5	중앙식당	한식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11-10	061-275-4061
6	연꽃섬	한식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11-15	061-275-3500
7	정화식당	한식	전남 신안군 하의면 안곰실길 24-14	061-275-4037
8	만리향	중식	전남 신안군 하의면 안곰실길 68	061-275-4554

신안 하의도 숙박

연번	상호명	유형	주소	연락처
1	인동초의집	펜션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오류동길 175	061-275-6729
2	덕봉정민박	민박	전남 신안군 하의면 덕봉길 7-6	061-275-4123
3	황소민박	민박	전남 신안군 하의면 전광길 3	061-275-4280
4	중앙민박	민박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11-10	061-275-4080
5	연꽃섬민박	민박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11-25	061-275-3500
6	평화민박	민박	전남 신안군 하의면 안곰실길 40	010-3085-4055
7	하의민박	민박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8-5	061-275-4011





하의도 공영버스 운행 시간표(상·하리 회차별 운행 시간 동일)

북부) 2024. 1.1. ~ 변동시까지 운행

선착장 → 옹곡삼거리 → 전월 → 종남리 → 대통령생가 → 작은개 → 대내기 → 운산 대리1구 → 대리삼거리 → 당두 → 전광 → 오류동 → 복지센터 → 선착장

남부) 2024. 1.1. ~ 변동시까지 운행

선착장 → 복지/보건소 → 하의어린이집 → 하의초등학교 → 연동 → 피섬 → 유희리 → 봉도 → 오림 → 뒷개 → 하의어린이집 → 복지/보건소 → 선착장

여객선터미널 안내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엔젤) 061-244-0522 (남신안농협) 061-242-0888

주소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하의도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엔젤) 010-8605-4123 (남신안농협) 061-242-0888

주소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3-23

신진해운(쾌속선) 전화 061-244-0522

운임 목포 ↔ 하의(성인 1인 30,900원)

남신안농협(차도선) 전화 061-244-0522

운임 목포 ↔ 하의(성인 1인 12,950원)

*차량 선적 불가. 유류할증료 변동으로 운임 수시 변동

*기상 악화 및 선박 안전 점검·수리 등으로 운항 변동이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거북바위산

금성산

망매산

봉도선착장



퍼스트엔젤호(쾌속선)

항차	기항지	목포 → 하의도		하의도 → 목포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목포	06:00	-	-	08:45
	장산(북강)	06:45	06:40	08:05	08:00
	하의(옹곡)	07:15	07:10	-	-
	신의(상태서리)	-	07:20	07:25	-
2	목포	14:00	-	-	16:45
	장산(북강)	14:45	14:40	16:05	16:00
	하의(옹곡)	15:15	15:10	-	-
	신의(상태서리)	-	15:20	15:25	-



남신안농협(차도선)

항차	기항지	목포 → 하의도		하의도 → 목포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목포	05:30	-	-	10:05
	안좌(북호)	-	-	09:10	09:05
	장산(북강)	06:45	06:40	08:55	08:50
	하의(옥도)	07:25	07:20	-	-
	하의(장벽)	07:35	07:30	-	-
	하의(옹곡)	-	07:50	08:00	-
2	목포	12:00	-	-	16:35
	장산(북강)	13:15	13:10	-	-
	하의(옥도)	13:35	13:30	15:40	15:35
	하의(장벽)	-	-	15:25	15:20
	하의(옹곡)	-	14:20	14:30	-
3	목포	17:20	-	-	22:05
	안좌북호	18:20	18:15	21:10	21:05
	장산북강	18:40	18:35	20:55	20:50
	하의(옥도)	19:20	19:15	-	-
	하의(장벽)	19:35	19:30	-	-
	하의(옹곡)	-	19:50	20:00	-

하의 옹곡 상·하리 순환 운행 (옹곡 선착장 ↔ 옹곡 선착장)

회차	출발	도착	회차	출발	도착
1	06:30	06:55	6	11:50	12:18
2	07:00	07:30	7	13:10	13:38
3	07:50	08:18	8	14:30	15:00
4	09:30	09:58	9	15:00	15:30
5	10:00	10:28	10	16:00	16:30

• 하의도 여행 명소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 _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의도에서 출생하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치 신념을 갖고 성장한 인물, 김대중은 1998년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인동초'란 수식어를 낳은 (故)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분단국가로 대치 중이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업적을 기리어 1999년 종친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과 대구 노인복지대학노인회에서 보내온 성금 등으로 하의면 후광리에 남아있던 생가 복원이 이뤄졌다, 당시 생가를 소유하고 있던 어은리에 살던 주민에게서 다시 집을 사들여 후광리에 대지 2,466.12m²(746평)의 목조 초가와 창고, 측간으로 구성된 시설물 등 생가를 신안군에 기증했다. 지자체에서는 복원된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상시 개방하여 섬을 찾는 여행객들을 위한 섬 명소로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길 전남 신안군 후광길 255



2 _ 야외조각 미술관

신안군이 추진해 온 '1도 1뮤지엄' 프로젝트로 하의면 후광리 일원에 천사상 야외조각 미술관이 조성됐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프라가 내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 지역에 조성해서 섬 주민은 물론 여행객들을 위한 명소로 문을 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양한 형태를 지닌 천사상은 저마다 귀엽고 앙증맞은 표정을 짓고 있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한다. 천사상은 조각 미술 작품과 함께 야외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생가와 접해 있어 함께 보기에 더없이 좋다. 인권과 민주, 평화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섬인 하의도를 천사들의 안식처처럼 느낀 점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 미술관에서는 조각상 318점과 조형물 3점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찾아가는 길

전남 신안군 후광길 255 (김대중 대통령 생가 뒤편)

3 _ 큰바위얼굴

14년만에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찾으면서 재조명받기 시작한 이 바위는 어은리와 접한 해안도로의 명소인 모래구미 해수욕장을 지나 만날 수 있다. 죽도(竹島)라는 지명을 지닌 무인 섬은 앞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 꼭 사람 얼굴과 같아 그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뒤에서 보면 네발 달린 짐승, 특히 사자나 호랑이가 쭈그려 앉은 모습을 그려내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바라보는 시선과 각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구전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큰바위얼굴 설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하의도 피섬(어은리)마을 뒷산에 고승이 암자를 짓고 덩치 큰 수사자를 키우며 수도에 정진했는데, 앞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면서 자주 출몰해 가축은 물론 인명까지 해치는 일이 일어나곤 했다. 이에 수사자와 마을 젊은이들이 스님의 지휘 아래 사생결단으로 공격해 호랑이를 잡았지만, 수사자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스님 또한 심한 부상을 입었다. 마을 사람들의 소생 기원에도 스님은 18일 만에 운명했고, 수사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울부짖다 죽었다고 한다.



찾아가는 길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리 산 318(큰바위얼굴 전망대)

4 _ 모래구미 해수욕장

하의도에서 서남쪽에 있는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하의도에서 보기 드문 생태 명소를 만날 수 있는데, 바로 모래구미 해수욕장이다. 그 길이가 100m에 폭 80m로 적은 면적이지만, 멋진 비경을 자랑하는 리아스식 해안이 접해 있어 주민이나 여행객이 찾는 곳이다. 섬 주민들에 의하면 어은리 1구 마을을 등지고 큰 목섬과 향도를 앞에 둔 해안에도 모래 해변이 형성되어 있지만, 바닥층 대부분이 갯벌이라서 해수욕하기에 적합한 지형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이 해변은 간조대에 이르러 모래해변 앞에 있는 향도(項島)와 소향도를 걸어서 오갈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찾아가는 길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리 산268



<특집 코너>

바닷길을 통해 만나는 하의도 작은섬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섬사랑15호 출발



1. 장병도



2. 옥도



5. 부류식 김 양식장



6. 개도



9. 신도



10. 큰 섬 하의도로



* 안전한 운항을 위해!



* 즐겁게~!



3. 바닷길에서 만난 등대



4. 문병도



7. 능산도



8. 대야도

연번	선명	항로명	운항시간	비고
1	섬사랑1	완도군 이목 → 당사도	1:32	편도
2	섬사랑2	완도군 이목 → 땅끝	2:35	편도
3	섬사랑3	완도군 완도 → 모도	1:23	편도
4	섬사랑4	신안군 진리 → 지도(봉리)	4:30	편도
5	섬사랑5	완도군 완도 ↔ 덕우도	4:15	왕복
6	섬사랑6	목포항 → 도초 우이도	2:25	편도
7	섬사랑7	여서도 → 완도군 완도	5:33	편도
8	섬사랑8	완도군 이목 ↔ 넙도	1:47	왕복

연번	선명	항로명	운항시간	비고
9	섬사랑9	진도군 진도 → 죽도	1:32	왕복
10	섬사랑10	목포항 → 상조도 울목항	10:00	편도
11	섬사랑11	장산도 북강 ↔ 북강	4:30	편도
12	섬사랑12	영광군 향화 ↔ 낙월도	2:05	왕복
13	섬사랑13	목포항 → 진도군 울목항	10:00	왕복
14	섬사랑14	하의도 옹곡리 ↔ 옹곡리	4:05	편도
15	섬사랑15	영광군 계마 → 안마도	2:20	왕복
16	섬사랑16	(예비선)	-	편도

※ 매 항차 또는 물때에 따라 시간 및 기항지 변동 발생

: 항차별 세부 기항지는 해양운수 홈페이지(<http://www.xn--wk0br4bw3g3rj.kr/main/main.php>) 확인 필요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 이달의 주요 섬 뉴스

1

가고 싶은 섬 진도 금호도, 섬 주민 복지 시범사업 “어복버스”로 주민 만족도 up!



해양수산부·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지원 “어복버스” 프로그램이 진도 금호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섬·어촌 지역 비대면 진료,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1월 목포 달리도에서 첫 시연회를 가진 후 여수시 소경도와 고흥군 애도, 완도 덕우도에 이르기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이번에는 가고 싶은 섬 중 처음으로 진도 금호도에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진료 전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의사의 사전 문진을 통해 금호도 어르신들의 현재 신체 및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한 후 비대면 진료 의사에게 전달, 이후 문진 순서대로 3~5분간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시연회 후 주민 만족도 평가로 의견을 수렴해 금호도 내 비대면 진료 매뉴얼을 비치하고 주민 대표에게 사용법도 안내해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1 비대면 진료료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주민들은 이·미용 서비스와 더불어 전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라탄바구니 만들기 체험 등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의료·복지 영역의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어복버스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전남 가고 싶은 섬, 해양관광 기상융합서비스 사업 vers2 한걸음



전라남도도와 광주지방기상청은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를 통해 발전된 기상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도청 송순실에서 “2024 전남 가고 싶은 섬 해양관광 기상융합서비스 개선 사업 제1차 정보사용자 협의회”를 열어 서비스 추진계획을 공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미 진행중인 가고 싶은 섬 14곳 이외에 신규 선정 가고 싶은 섬 10곳과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며, 사용자 맞춤형 해양관광 추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섬코디네이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후 홈페이지 서비스 체험단 모집 및 SNS 활용 서비스를 통해 가고 싶은 섬 해양관광 기상융합서비스를 방문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섬 여행객들이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를 통해 섬을 좀 더 쉽고 편히 찾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3

가고 싶은 섬 여수 송도 선진사례견학 가다!



2023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여주시 돌산읍 송도의 강성수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섬 주민 50여 명이 함께 선진사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여수 송도는 ‘음악이 있는 섬. 노래하는 송도’라는 기본 컨셉으로 사업추진 1년차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선진사례 견학은 대다수 송도 주민이 참여하여 섬 가꾸기에 힘쓰기 위한 것으로, 무장에 여행지를 중심으로 견학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도 선홍리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곶 운영 사례 강의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과 생태관광을 통한 사회적 경제 역할 및 수익 창출 구조에 대해 배웠고, 동백동산 생태해설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풍리 ‘아방어멍잔치마을’에서는 자원을 활용한 축제 개최 방법과 지역농·수산물 활용 음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광 편의시설 운영 사례 등에 관해 학습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 섬 송도가 다양한 교육을 바탕으로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킬러콘텐츠 발굴 섬 활동가 소통 토론회 개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섬 방문 활성화 위해 노력하는 섬 활동가들이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 모였는데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내용 소개에 이어 여주시 섬박람회 대책과에서 연계사업 발굴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모세한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상징하고 섬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고, 섬 박람회장 구성에 적용가능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지명을 활용한 콘텐츠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콘텐츠, 전통음식을 활용하는 콘텐츠, 섬과 여수지역을 연계한 콘텐츠 발굴 등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뤄져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토론회 개최와 의견 공유를 통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